

인-태지역에서의 “전략적 동시성”: 위험평가와 대응방향

손한별(국방대학교 전략학부 부교수)

동북아 정세와 북·중 간 협력 및 도전요인

김한권(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센터장)

인-태지역에서의 “전략적 동시성”: 위험평가와 대응방향



손한별(국방대학교 전략학부 부교수)

- 북한의 핵개발로 긴장관계를 유지해오던 북중관계는 미중 전략경쟁의 틈 속에서 결속을 강화하고 있음
-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중국은 의도와 관계없이 인-태지역에서 “전략적 동시성”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한반도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심각한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 한미일 3국 협력체계를 기초로 하여, 시나리오 개발 및 TTX, 중국과의 대화와 관여, 대비태세 검토 및 나토와의 협력을 통한 적응성 확보, 역내 주도적 역할수행 등을 통해 위험에 대응해나가야 할 것임

애증의 북중관계

역사적으로 북중관계는 한국전쟁에서 형성된 “항미동맹”을 통해서 견고한 운명공동체로 발전했다. 완전한 패배 직전의 상황에서 중국은 막대한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였고, 이후 김일성의 “유일독재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국내정치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비교적 최근까지도 북중관계는 이중적 성격을 보여왔다. 중국은 북한의 제2차와 6차 핵실험 이후 유엔의 대북제재에 찬성했지만, 이후에는 제재에 반대하면서 북한의 정치적 후원자로 역할했다. 한편 김정은은 친중파인 장성택을 처형하면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했고, 미중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는 상황에서 미국과 핵협상에 나서면서 중국의 영향력을 벗어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북한의 핵개발 역시 북중관계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주류의 시각은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위협에 대한 안보 목적으로 핵개발을 했다는 것이지만, 냉전이 종식된 이후 중국으로부터 버려지지 않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¹⁾

그렇다면 몇가지 질문을 제시할 수 있다. 북한의 핵개발은 여전히 중국에게 부담인가? 북한은 핵을 레버리지로 삼아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은 어쩔 수 없이 북한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을 것인가? 핵을 가진 북한은 미중 경쟁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나선 중국에게 북한은 어떤 시너지를 제공할 수 있는가? 북핵은 동아시아 지역에 어떤 위협을 야기할 것인가?

미중 경쟁의 틈 속에서 발전한 북중관계

긴장관계를 유지해오던 양국을 다시 묶은 것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었다. 미국은 무역갈등, 항행의 자유작전, 자유민주주의 가치, AUKUS를 비롯한 소다자주의 결성, 신장·티벳·홍콩의 인권문제 등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한발 빠른 움직임이 불리한 것만 아니다. 미국의 위협과 타이완 위기를 강조함으로써 국내적으로 시진핑 체제를 공고히 하고, 대외적으로 진영을 강화할 수 있는 명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러시아, 파키스탄, 이란, 북한 등의 협력과 밀착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이 미국과의 경쟁에서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운신할 수 있는 공간을 확장하고 있다. 2018년부터 시작된 미국과의 비핵화협상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소원했던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했고, 중국을 강력한 후원자로 결박시켰다. “두터운 동지적 신뢰와 각별한 친분관계”라며 밀착관계를 이어가고 있고,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서 철저히 중국을 옹호하고, 미국이 대중국 견제의 의도를 갖고 있다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위험평가 : 6개의 시나리오

이렇게 북한과 중국이 전략적 제휴를 지속한다면, 발생가능한 군사적 위협에는 무엇이 있는가? 북중이 야기하는 “전략적 동시성”이 한국에 미칠 수 있는 위험 시나리오를 개념적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²⁾

• **From KOPEN** : 북한은 핵능력에 기반하여 기회주의적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불안정이 심화되는 경우 급변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어떠한 경우든 북한은 중국과의 동맹조약에 명시된 “자동개입” 조항을 고려할 것이다. 북한과 중국이 공격을 공동으로 기획하든, 의도치 않은 확전이 되든 양국은 한반도에서 군사적으로 협력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급변사태시, 대량탈북 및 주민소요, 근접한 핵시설 위험, 북한의 우회적 도발 등 불안이 야기되면 중국이 개입할 수 있다. △북한과 중국이 상호 교감하에 한미동맹의 군사적 능력을 약화시키려고 할 수도 있다.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겠지만 북한은 중국보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한반도에서의 불안정 상황을 조기에 종료시키기 위해 중국이 대규모의 재래식 공격 또는 핵공격을 감행할 가능성도 예상해볼 수 있다.

• **Into KOPEN** : 중국이 미국 본토를 선제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역내에서 미국 동맹국의 영토나 자산을 공격하는 것이 시발점이 될 것이다. 특히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워 공격하기 용이할 뿐 아니라, 북한이 통합된 공격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 한국을 공격할 수 있다. 한국을 볼모로 삼아 제한적이지만 확실한 피해를 가한다는 것이다. △한국 영토에 전개된 미국의 군사력을 공격하여 미국을 거부할 수 있는데, 미국의 선제공격이나 제2격을 거부함으로써 동맹의 능력에 타격을 준다. △한국에 대한 대규모 공격으로 한국의 의지를 꺾고 한미동맹을 분리하려고 할 수 있는데, 가장 강력한 수준의 공격이 될 것이다.

1) Bruce Cumings, *Parallax Visions: Making Sense of American-East Asian Relations at the End of the Century* (Duke University Press, 1990), pp.121-150.

2) 전경주, 손한별, “미중 전략경쟁 하 중국 핵위협과 한반도,” 2022년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문(2022.6.29.).

원인	공격 시나리오	규모	확전 의도
From KOPEN	북한 급변에 따른 영향요인 차단	●	×
	북중의 협조된 공격으로 동맹의 군사력 약화	●●	○
	한반도의 확전 차단 및 조기 종료	●●●	×
Into KOPEN	미국에 대한 의지 현시	●	×
	미국의 군사적 능력 거부	●●	○
	한국의 동맹수호 의지 분쇄	●●●	○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북한의 핵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핵태세가 공세성을 높이고 있는 것은 한국에게 심각한 위협이며, 중국이 핵능력을 질량적으로 증강하고 있는 현실 역시 글로벌 차원의 핵질서를 변경시킬 만한 요소이다.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각각 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국이 인-태지역에서 “전략적 동시성”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은 더욱 중요해졌다.³⁾ 그들의 중요한 목표가 지역적으로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를 약화시키는 것이라면, 반대로 그들의 동시성을 분산시키고 교란하는 것이 목표가 될 것이다.

먼저 **소극적으로는 통합을 차단하는 것이 단기적인 목표**이다. 최소한 의도적으로 기획된 공격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 **오관 방지** : 북한과 중국이 지역의 전략상황을 자신들이 공격하는데 유리하다고 오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국이나 일본의 대비태세가 약하거나 미국의 개입이 지연되어 단기간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오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중이 기습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공격우위의 상황’이라고 판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동시성 방지** : 동아시아의 위협 지점으로는 북한의 도발, 타이완 유사사태, 센카쿠 분쟁 등이

거론된다. 의도하지 않더라도 한 곳에서 군사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편에서 기회주의적 공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낮은 단계에서 조기에 위기상황을 종결함으로써 수평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 **통합성 방지** : 가장 우려되는 것은 북한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통합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오랜 불신의 역사가 있기는 하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략적 계산이 달라지고 있다. 높은 수준의 작전적 상호운용성이나 공동기획에 이르는 않겠지만, 연합훈련 등을 통해 통합성을 시험하지 못하도록 전략적으로 강압할 수 있어야 한다.

보다 장기적이고 적극적으로는 북중의 연계를 분리(decoupling)해야 한다. 정치심리전, 정보전, 인지전 등 다양한 차원에서 상대를 분리함으로써 통합으로 인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다.

- **정보 분리** : 상황에 대한 오관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공유된 인식을 방해하기 위해서는 전략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정보전은 데이터 수준에서부터 시작되는 점에서 상대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교란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아울러 기술경쟁에서 상대보다 빠르게 첨단 군사기술을 적용하는 것도 교란을 위한 핵심요소이다.
- **공간 분리** : 상대가 공간을 통합하여 활용하는 것을 차단해야 하지만, 완전히 장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물리공간과 사이버 공간을 막론하고 핵심지점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역간 교차지점을 선점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는데, 새로운 전략공간으로 등장하고 있는 우주 및 사이버에 대한 접근지점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동맹 및 파트너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 **심리 분리** : 상대 내부의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가장 어려운 목표이다. 고도의 정치심리전, 인지전을 통해서 내부의 신뢰성과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분리전략이지만, 정당성 측면에서 역공의 여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럽다. 특히 중국, 북한이 더욱 정교한 공격방법과 수단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기획과 실행이 요구된다.

3) Markus Garlauskas,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must be ready to deter a two-front war and nuclear attacks in East Asia,” *Atlantic Council Report* (August 16, 2023), <https://www.atlanticcouncil.org/in-depth-research-reports/report/the-united-states-and-its-allies-must-be-ready-to-deter-a-two-front-war-and-nuclear-attacks-in-east-asia/>

핵심요건 : 한미일 3국 협력

상대의 통합을 방지하고 연계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통합성을 강화해야 한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한미일 협력이 핵심이다. 3국 협력의 최종목표는 통합되고 역동적인 억제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⁴⁾

불확실하고 예측불가능한 미래를 고려하여 적응성을 강화하고, 3국이 지향해야 할 일관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 **자강력 확보** : 한미일 협력의 각 꼭지점으로서 각국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가장 강력한 방안으로 한국이 “절대무기”인 핵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그만큼 위험하고 치러야 할 비용도 크다. 우선은 한국형 3축체계를 중심으로 제3차 핵시대에 부합하는 첨단 군사기술을 적용하여 전략적 우위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 **미국과의 동맹 강화** :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현재 수준에서 미국을 축으로 연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미동맹의 경우, 한국과 미국의 “쌍수검(雙手劍)”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인데, 동맹국간 군사적 역할을 분담하고, 핵협의그룹(NCG)를 통한 핵공유 강화, 일부에서 힘을 얻고 있는 전술핵(SLCM-N) 배치 및 운용 등과 연계함으로써 한미동맹의 군사적 통합성을 높일 수 있다.
- **한미일 통합억제** : 한미일의 “황금방패”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효과적이다.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3개국의 군사협력이 제도화되고, 다양한 차원의 협력으로 확대함으로써 통합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 개념에 부합하며, 지역을 넘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연계로 이어져 억제력을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정책제언

핵심적인 과제들이 이미 제시되었으나, 북한의 핵위협과 북중의 전략적 동시성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몇가지 정책과제에 우선적으로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 **시나리오의 개발** : 복잡하고 불확실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실한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나리오 공간(scenario space)”이라고 불리는 관련국의 정치-군사관계, 군사전략, 군사력, 병력/무기체계의 효과성, 환경요소, 일련의 위기 전개와 기타 변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일의 전문가들이 “Pol-Mil 게임”, Table Top Exercise를 통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이를 검증 및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중국과의 대화와 관여** :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면서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핵위기는 결코 남북한만의 문제로 남지 않으며, 대응 차원에서도 주변국 변수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위에서 제시한 몇가지 위험 시나리오 외에도 중국이 한반도와 지역 차원에서 야기할 수 있는 위협은 심대하다는 점에서, 각국이 중국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다.
- **적응성 확보** :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변화를 기민하게 파악하며 적응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최대한 많은 시나리오를 동시에 대응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만병통치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현재 대비태세의 공백을 식별하고, 취약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을 축으로 하는 태평양-대서양 동맹의 연계는 역사적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정당성과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며, 기술 우위와 회복탄력성을 유지함으로써 높은 적응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의 역할 확대** : 한국은 북한, 그리고 중국의 위협에 직면하여 상대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일본을 대신하여 중국과의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그것은 한국이 북핵 위협에 처해있다는 명분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역사적, 문화적으로 미중간의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아시아의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의제를 주도하고, 지역 위기안정성 강화를 위한 협의체 마련 등 한국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4) Hanbyeol Sohn, “The Future of the Indo-Pacific as Envisioned at Camp David: A Korean Perspective,” *The Peninsula*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September 6, 2023), <https://keia.org/the-peninsula/the-future-of-the-indo-pacific-as-envisioned-at-camp-david-a-korean-perspective/>

동북아 정세와 북·중 간 협력 및 도전요인



김한권(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센터장)

-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 하에서 북중관계는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과 함께 국제정세의 신냉전 인식과 역내 진영화 구도에 대한 시각 차이가 존재
- 북·중 양자 간 협력 강화와는 달리 북·중·러 3국의 다자간 협력은 역내 진영화 구도에 대한 중국의 우려로 현재의 상황 하에서는 한계가 전망
- 최근 다자외교를 통한 북한의 비동맹 및 개발도상국 국가들에 대한 교류 확대는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전략적 접근에서 북·중 간 협력 공간의 확대 가능성

미·중 전략적 경쟁이 점차 심화하는 가운데 근년에 들어 동북아 지역을 둘러싼 국제 환경에 크게 두 가지의 의미 있는 변화가 발생했다. 하나는 글로벌 차원에서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어온 미중관계가 경쟁과 대화의 병행국면으로 전환되었고, 이로 인해 미국은 물론 독일, 프랑스, 일본, 호주 등 미국의 주요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도 중국과의 고위급 대화와 경제 협력을 강화시키고 있다.¹⁾ 다른 하나는 역내에서 북한의 점증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억제력을 높이는 한·중·일 3국의 협력이 강화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중국과 북한에게 복잡한 전략적 계산을 요구했다. 양자 사이는 물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 나아가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전략적 접근 및 중동의 정세 변화까지 염두에 두며 북중관계에서 새로운 협력과 도전요인들을 발생시켰다.

1. 국제정세와 북·중 협력의 배경

2017년 1월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며 미·중 전략적 경쟁은 무역 협상과 보복관세 조치를 통

해 본격적인 갈등과 대립이 수면 위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또한 양 강대국 간 경쟁과 충돌은 정치, 외교, 군사·안보, 과학기술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어 갔다. 이 과정에서 북·미 핵 협상은 2019년 2월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김정은-트럼프 회담의 결렬 이후 정체되어 왔다. 2021년 1월에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은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다자적이고 한층 세밀해진 대중국 전략적 압박과 견제를 실행해 왔다. 또한 2022년 2월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2023년 10월에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발생하여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2024년 4월에는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상호 군사적 보복조치가 실행되었다.

러시아와 북한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제재를 받고 있다는 동병상련의 입장과 함께, 미국과 치열한 전략적 경쟁을 펼치고 있는 중국과의 협력을 추구해왔다. 중국 또한 대미정책을 위해 북·러 및 북·중 전략적 협력의 강화가 필요했다. 따라서 중국, 북한, 러시아 사이에는 양자 및 다자 관계에서 전략적 연대를 통해 미국에 대응하려는 협력 요인이 존재해 왔다. 하지만 중러관계에

1) 김한권, "미·중 대화국면의 의미와 한중관계에 대한 함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주요국제문제분석 2023-20 (2023년 7월).

서 양자는 물론 브릭스(BRICS) 및 상하이협력기구(SCO)를 통한 다자 협력 요인이 모두 존재해 온 반면, 북중관계에서는 양자 중심의 협력이 주를 이루어왔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중국의 대외정책에서 ‘대국외교(大國外交)’의 역할 중시와 더불어, 최근 북·중 사이에 나타난 국제정세의 신냉전 인식과 역내 진영화 구도에 대한 시각 및 전략적 손익 계산의 차이에 따른 도전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2. 북·중 간 국제질서의 신냉전 인식 차이

김정은은 2008년에 “새로운 냉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이후,²⁾ 근년에 들어 2021년 9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의 연설에서 “국제관계 구도가 신냉전 구도로 변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2022년 12월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의 보고에서 김정은은 국제정세가 “신냉전 체제로 명백히 전환되었다”고 발언했다. 또한 김정은은 2023년 9월 26-27일 사이에 개최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14기 9차회의의 연설에서 “제국주의 반동세력에 의해 전지구적 범위에서 신냉전 구도가 현실화되고”있다고 지적하며 핵 무력 건설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반면 중국은 북한과는 대조적으로 냉전 사유와 국제질서의 신냉전 구도 인식에 대해 반대이사를 표명해 왔다. 예를 들어 시진핑 주석은 2022년 11월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의 연설을 통해 “인류문명은 이미 21세기에 진입했으며, 냉전사유는 이미 시대가 지났다”고 언급했다.³⁾ 또한 2023년 3월에 시 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개최되었던 중·러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서는 1항에서 “중러관계는 냉전시기의 군사 정치 동맹과 유사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5항에서는 중·러가 “냉전 사유를 반대하고, 진영 대항에 반대하고, 특정국가를 겨냥한 소집단에 반대”한다고 기술했다.⁴⁾

북중관계에서 신냉전 구도에 대한 이견은 존재하지만, 당면한 대미관계 및 전략적 손익을 고려한다면 양자 간 대립각을 세우는 심각한 도전요인이 되지 않게 신중히 관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중 간 신냉전 구도에 대한 분명한 인식 차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2024년에 들어서도 1월에 열린 제19차 비동맹운동(NAM) 정상회의에서 외무성 부상인 김선경이 현재의 국제정세를 “신냉전의 유령이 배회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언급했으며, 1월 22일자 노동신문은 러시아 언론의 일본 비판 기사를 소개하며 국제무대가 “신냉전이 더욱 표면화”되었다고 기술했다. 또한 같은 달 25일자 노동신문은 국제정세를 보도하며 “국제관계 구도가 신냉전 체제로 전환”되는 상황으로 묘사했다.⁵⁾ (표 1.참조)

<표 1. 최근 북·중의 신냉전 구도 인식에 대한 대표적 발언>

일시	회의	관련 내용
2021년 9월	북한 최고인민회의 김정은 연설	“국제관계 구도가 신냉전 구도로 변화되고 있다”
2022년 11월	G20 정상회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설	“인류문명은 이미 21 세기에 진입했으며, 냉전사유는 이미 시대가 지났다”
2022년 12월	북한 조선노동당 전원회의의 보고에서 김정은 발언	“신냉전 체제로 명백히 전환되었다”
2023년 3월	중·러 정상회담 공동성명	“냉전 사유를 반대하고, 진영 대항에 반대하고, 특정 국가를 겨냥한 소집단에 반대” (5항)
2023년 9월	북한 최고인민회의 14기 9차 회의 김정은 연설	“제국주의 반동세력에 의해 전지구적 범위에서 신냉전 구도가 현실화되고...”
2024년 1월	제19차 비동맹운동 정상회의의 북한 외무성 부상 김선경 발언	“신냉전의 유령이 배회하고 있는 현실”

2) 조선중앙통신. “<새로운 냉전>론이 대두하게 된 배경” (2008년 6월 6일).
 3)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习近平在二十国集团领导人第十七次峰会第一阶段会议上的讲话(全文)” (2022년 11월 15일). “...人类文明已经进入21世纪, 冷战思维早已过时...”
 4)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中华人民共和国和俄罗斯联邦关于深化新时代全面战略协作伙伴关系的联合声明” (2023년 3월 22일). 1항에서 “...中俄关系不是类似冷战时期的军事政治同盟...” 그리고 5항에서 “...反对冷战思维, 反对阵营对抗, 反对搞针对特定国家的小圈子...”

5) “제19차 블러블가담국가 수뇌자회의 진행” 노동신문 (2024년 1월 22일); “일본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나토의 길잡이가 되고 있다” 노동신문 (2024년 1월 22일); “세계는 다극화어로 더욱 활력 있게 나아가고 있다” 노동신문 (2024년 1월 25일).

3. 북·중·간·한·미·일 대 북·중·러 진영화 구도의 시각 차이

국제정세를 신냉전 구조로 인식하고 강조해왔던 김정은 체제는 나아가 2023년 7월 27일에 열린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북한은 전승절로 명명)에 중국과 러시아의 대표단을 초청하여 북·중·러 협력을 모색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은 러시아 대표단 및 중국 대표단과 각각 연회를 개최했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대표단이 방북 기간 중 북·중·러 3국 회담을 갖는 자리가 없었던 점은 당시 3국의 협력 논의가 북한의 의도대로 심도 있게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7.27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의 모습은 중국이 북한의 의도대로 움직일 생각이 없었던 점이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미·중 전략적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역내에서 한국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한일관계 개선 및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이 나타났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수준에서 러시아 및 북한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은 러시아 및 북한과의 다자적인 협력 강화로 인해 동북아 지역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진영화 구도가 본격적으로 부상할 가능성에 대해 전략적 우려를 느끼고 있다.

이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진영화 구도를 통해 얻는 중국의 이익이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 및 일본과 함께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정치 및 사회·문화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동맹 강화 및 글로벌 가치 사슬 구축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이익의 공유 및 확대를 모색하고 동시에 전략적 신뢰(strategic trust)를 쌓아나가고 있다.

반면 중국은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러시아 및 북한과 상호 전략적 신뢰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북한과 러시아가 중국에게 의지하는 부분이 확대되는 상황은 향후 중국에게 '연루(entrapment)'의 전략적 부담으로 나타날 수 있음에 우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러시아로 인해 러-우 전쟁에 과도하게 연루되거나, 미국과의 경쟁과 관련하여 전략적으로 접근 중인 EU의 주요국들에게 러시아에 대한 지원 문제로 중국

의 이미지가 훼손될 가능성에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2023년부터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이후 현재까지 중국에 대한 비판을 이어오고 있다.⁶⁾ 또한 미국과 국제사회가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지원 문제를 지적했듯이, 향후 국제사회가 '핵의 비확산' 논의에서 중국의 북한 지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와 더불어 중국은 본격적인 북·중·러의 협력 강화는 미국에게 한·미·일 협력 강화를 증진하는 또 하나의 이유로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하고 있다.

4. 북·러 협력과 중국의 대국외교

결과적으로 중국은 러시아와 북한이 미·중 사이의 주요 현안에서 자국을 지지하고 양자 차원에서 협력해 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중·러 및 북·중의 양자관계가 아닌 다자적인 북·중·러 3국 협력의 강화와 역내 진영화 구도의 움직임에는 소극적이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을 잘 알고 있는 북한은 2023년 7.27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에 이어 같은 해 9월 13일에 모스크바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중국을 자극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미 핵 협상의 결렬과 오랜 제재로 인한 경제적 및 정치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신냉전 구도를 기반으로 한 북·중·러 협력과 국제사회의 진영화 구도를 통해 돌파구를 모색해야 했다. 올해 들어서도 1월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푸틴 대통령을 예방한데 이어, 김성남 북한 노동당 국제부장이 3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중국, 베트남, 라오스 등 동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들을 방문한 것도 이러한 북한의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중국의 대답은 '거리두기'와 '대국외교'의 실행이었다. 마오닝(毛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13 북·러 정상회담 전후로 열린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은 "북·러 사이의 안배(朝俄之间的安排,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문제이다)"로 언급하며 중국과 거리

6) Kylie Atwood. "China is giving Russia significant support to expand weapons manufacturing as Ukraine war continues, US officials say" CNN (April 12, 2024); Steve Holland and Susan Heavey. "US says China is boosting Russia's war machine in Ukraine" Reuters (April 16, 2024).

를 두는 모습을 분명히 했다.⁷⁾ 이어 9.13 북·러 정상회담 직후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 정치 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중·러 제18차 전략과 안보 협의(中俄第十八轮战略安全磋商)에 참석차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9월 18일에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i Lavrov) 러시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가지고, 이틀 후인 20일에는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중국의 이러한 대응은 냉전시절 중국과 소련을 오가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 시기 미·중 사이를, 그리고 최근에는 다시 중·러 사이를 오가며 실리를 모색하는 북한의 ‘시계추 외교’에 대해 자국의 ‘대국외교’로 대응하려는 모습으로 분석된다. 만약 북한이 중·러를 오가며 역내 정세를 자신의 의도대로 이끌어 가려고 한다면, 중국은 러시아와 직접 대화하며 역내 주요 현안들을 역내 관련 강대국 간의 논의를 통해 정리해 나가겠다는 뜻이다.

5. 한국에 대한 함의

북중관계에서 중국은 대국외교를 통해 북한과 신냉전 인식 및 동북아 진영화 구도에 대한 시각 차이를 관리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중국의 대응으로 양자관계 중심의 중·러 및 북·중 간 전략적 협력은 견지될 전망이나, 북·중·러 3국의 다자간 협력은 역내 진영화 구도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우려로 현재의 상황 하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한국은 첨단 군사 과학 기술을 제외한 재래식 무기 체계 및 식량에 관한 러시아의 대북 지원, 북한의 이란에 대한 미사일 무기 및 기술 협력 가능성, 그리고 올해 1월에 북한이 제19차 비동맹운동 정상회의 및 제3차 개발도상국 정상회의에 연이어 참석하며 이들 국가들에 대한 교류 확대를 통해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접근에서 북·중 간 협력의 공간을 확대할 가능성 등은 향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이 대국외교를 통해 보여준 대응은 북한에는 물론 한국에게도 함의를 던지고 있다. 중국은 2023년 12월에 열린 ‘중앙외사공작회의(中央外事工作会议)’에 이어 2024년 3월에

개최된 ‘양회’⁸⁾에서 ‘중국특색의 대국외교’에 대한 강조와는 대조적으로 주변외교 및 한국과 일본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지 않아 의외였던 점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중국은 동 양회에서 한국의 시각과는 다르게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원인이 미국에 있음을 다시금 강조하며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언급했다. 이처럼 한·중 간 한반도 정세에 대한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에 대한 공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향후 중국이 한반도 정세에 대한 논의에서 한중관계보다는 중·러 대화를 바탕으로 미중관계를 통해 주요 현안들을 관리하는 대국외교의 모습이 강화되고 이에 따른 한국의 역할 감소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보장문제연구소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서, 국방부 및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내용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23年9月12日外交部发言人毛宁主持例行记者会”(2023年9月12日);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23年9月13日外交部发言人毛宁主持例行记者会”(2023年9月13日).

8) 중국 ‘양회’는 한국의 국회(國會)적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와 정책자문기관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가 매년 3월 초 비슷한 시기에 개최되어 진행되는 중국 최대의 연례적인 국내정치 행사이다.